

# 중동 위기에 강달러·고유가 지속... 국내증시, 변동성 확대

코스피, 전주비 32.39포인트 하락  
기업밸류업·금투세 폐지 불확실성  
美 기준금리 인하시점 연기 등 악재  
반도체·AI 중심 포트폴리오 권고

고금리, 고환율, 밸류업 기대 후퇴 등  
대내외 악재로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  
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  
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  
수는 지난 12일 2681.82로 전주보다  
32.39포인트(1.19%) 내려 3주 연속 하  
락세를 보였다. 밸류업 기대감이 약화  
되면서 보험(-7.22%), 전기가스(-5.  
87%), 금융업(-4.22%) 등 저PBR(주가  
순자산비율)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  
다. 이는 지난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  
패하면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금융  
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책 불확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5.14포인트(0.93%) 하락한 2681.82로 장을 마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3원 오른 1375.4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연  
내 인하폭이 축소될 것이라 전망이 확산

된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  
국 2년물 금리가 4.9%, 10년물 금리도  
4.5%대로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이 축소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7개월  
만에 1370원대를 넘어서며 외국인 수급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외  
국인 투자자는 지난 12일 코스피200 선  
물을 1조3267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국이 높은 경제 회복력을 보이며 강한  
고용과 완고한 물가 변동성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반면, ECB(유럽중앙은행)는 오는 6월  
첫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달  
러가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어 당분간  
강달러·고유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지  
정학적 리스크로 강달러, 유가 추가 상  
승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던 1370원 이후에는 1400원대  
까지 딱히 저항 구간이 없어 원·달러 환  
율은 1400~1410원까지 상단으로 열어  
둘 수 있으며 WTI는 지난해 고점인 93  
~9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

혔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증시에 불리한  
여건이 유지되고 뚜렷한 반등 계기가  
없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  
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는 통화정책 기대심리가 약해  
진 가운데 경기둔화가 맞물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며 “2분기에는 위험 회피(Risk Off) 심  
리를 강화하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  
한 경계 심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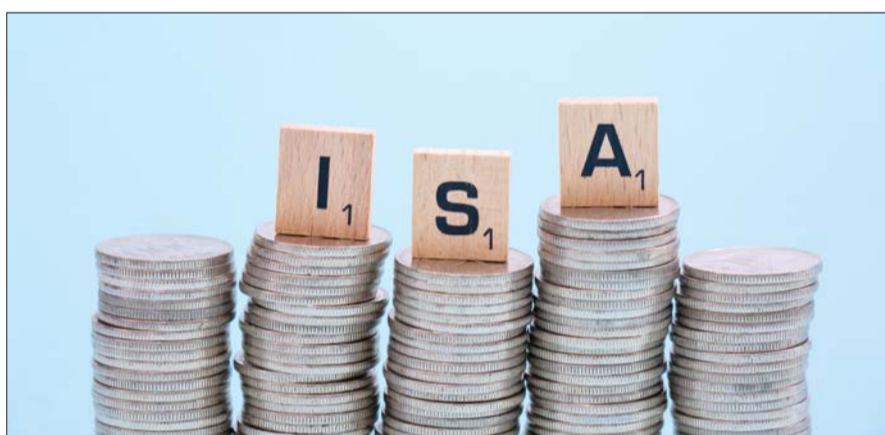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과 실적  
전망이 좋은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혁환 NH투자증  
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가장  
명확해 보이는 분야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등 미국 빅테  
크들의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된 분  
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與野, ISA 혜택 확대 기조 유지될 듯... 기대감 '들쭉'

ISA 혜택확대로 국민 자산증식 목표  
민주당, 한도없는 비과세 공약 제시  
국민의힘,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4.10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린 가  
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체로 금융투  
자 부문 공약은 여야가 대립했지만, ‘IS  
A 관련 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합의점  
을 찾아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A 자  
체는 2016년 첫 출시됐지만 2021년 ‘투  
자중개형 ISA’가 신규 도입되면서 증  
권가에서도 ISA를 주목하고 있다. 중  
개형 ISA는 위탁매매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만 판매 가능하며, 이는 신탁·일  
임형과는 다르게 개인이 개별 종목을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적  
극적인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  
울러 올해는 2021년부터 적용된 ISA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A 자체는 2016년 첫 출시됐지만 2021년 ‘투자중개형 ISA’ 신규 도입되면서 증권가에서도 ISA를 주목하고 있다. /유투이미지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는 해다.

그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3000명, 가입금액은 25조  
3604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ISA로 인한  
자금 유입이 많은 상태다. 가입자 수는  
2020년 말 대비 2.6배, 가입 금액은 3.9  
배가량 증가했다. ISA가 하나의 계좌로

예금·적금·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  
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널리 알  
려지면서 가입자가 많아진 것이다.

현행 ISA는 만 19세(근로소득에 따  
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라면 연간 2000  
만원 납입한도로 최대 총 1억원까지 납

입할 수 있다. 발생수익에 대해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  
며, 초과분부터는 저율과세(9.9%)를 받  
을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ISA와 관련한 공약이  
나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ISA 혜  
택 확대를 통해 국민 자산증식을 돕겠  
다는 공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  
야 모두 큰 궤는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  
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  
과세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  
의힘은 ISA 비과세 확대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ISA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  
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배  
당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  
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은 400만원  
→1000만원)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상생의 자본시  
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

득세 폐지, 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이  
됐지만 ISA 혜택 확대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ISA 보  
유 고객들이 증권사 내 다른 투자 상품  
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증권사들이  
ISA 고객을 끌기 위한 이벤트를 내놓  
고 있고, 그만큼 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  
도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증권사들의 ISA 고객 유치  
경쟁 마케팅 열기가 뜨겁다. 한국투자증  
권은 6월 말까지 뱅키스(BanKIS, 한국  
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거래 서비  
스) 고객 대상으로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한다.

NH투자증권 나무증권은 ‘중개형 IS  
A도 나무에서 시작!’ 이벤트를 통해 5월  
31일까지 중개형 ISA를 최초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NH멤버스 포인트 5000  
점을 증정하고, 1000만원 이상 중개형 I  
SA 순입금 고객 대상 선착순 1만명 대상  
으로 연 5% 특판 RP(세전, 91일물)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허정원 기자 zelkova@

## 반도체 훈풍에 연일 신고가 행진... ‘20만닉스’ 달성하나

metro 관심종목  
SK하이닉스

일주일 사이 주가 2.51% 상승  
목표가, 18.5만원 → 21만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훈풍의 영향  
으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  
다. 증권사들도 SK하이닉스의 목표주  
가를 올리면서 ‘장미빛 전망’에 힘을 실  
어주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  
닉스의 주가는 최근 일주일 사이 2.51%  
상승했다. 특히 11일에는 종가 기준 18  
만84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  
록하면서 ‘20만닉스’ 기대감에 힘을 더  
했다. 12일 장중에는 19만1400원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의 상승 랠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마지막 거래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54.90%로 역대 최고치  
로, 외국인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SK하  
이닉스(1조9040억원)를 3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도  
약 1조원을 사들이면서 삼성전자 다음  
으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 몰  
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  
면 연초부터 현재까지 SK하이닉스 실  
적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들의 1  
분기 시장 예상치는 매출 11조9751억  
원, 영업이익 1조4741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5.35% 상승, 영업  
이익은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 신축을  
발표했는데, 2028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  
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제반 여건상 HBM 경쟁사들도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지  
만,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감안할 때  
SK하이닉스의 1위 지위는 굳건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에 지어지  
는 HBM 패키징 공장은 미국 반도체법  
에 따라 수조 원대 보조금 수혜가 기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표가도 기존 18만5000  
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려잡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 삼성증권, 법인 실무자 위한 연금 아카데미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운영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법인 실무자를  
위한 연금아카데미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증권 연금 아카데미’는 HR·재  
무 담당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련 계리·노무·세무·상품 교육을 진  
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퇴직연금 실무  
담당자 대상 집합교육으로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눠 커리큘럼을 운영하  
는데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운영할  
예정이다.

첫번째 일정은 지난 11일 삼성증권  
삼성터운금융센터 세미나실에서 실시  
했다. 퇴직연금 실무자들 약 120명이 참  
석하였고 교육 내용으로 ‘스마트한 퇴



삼성증권은 지난 11일 퇴직연금 법인 실무자를 위한 연금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삼성증권

직연금 가이드’를 나상현 세무사, 흥정  
아 노무사가 각각 강의하고 ‘퇴직연금  
운용전략’을 글로벌채권팀의 김은기 수  
석이 강의했다.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팀장은  
“제도 운영의 막막함이나 어려움이 있  
었다면, 이번 삼성증권 연금 아카데미  
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